

BTS, 또 미국·영국 팝차트 석권...K팝 새 역사

'맵 오브 더 솔 : 7'

미 빌보드·영 오피셜 차트 동시 1위 예약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 (Map of the Soul: 7)로 세계 양대 팝 차트로 꼽히는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동시 정상을 예약하며 K팝 역사를 또 한 번 다시 쓰게 됐다.

빌보드는 24일(이하 현지시간) 예고 기사와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이 다음 주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1위로 데뷔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빌보드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매된 '맵 오브 더 솔 : 7'은 27일까지 미국에서 30만 점 이상의 앨범 수치를 획득할 전망이다. 점수 대부분이 음반 판매량에 힘입은 것이다.

빌보드는 음반 판매량과 디지털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rack equivalent albums-TEA),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treaming equivalent albums-SEA)를 합산해 가장 인기있는 앨범 순위를 산정한다.

음원 10곡을 다운받거나, 1500곡을 스트리밍한 경우 전통적인 음반 1장을 산 것으로 간주한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4월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 2018년 9월 '러브 유어셀프 걸 앤서', 2018년 6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등 직전 3개 앨범으로 빌보드 200 정상을 올렸다. 이번 앨범까지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네 장 앨범을 연이어 빌보드 정상에 올려놓은 것이다.

빌보드는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의 빌보드 200 1위 등극을 앞두고 당시 방탄소년단이 20만점~22만5000점의 앨범 수치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와 비교하면 30만점이라는 수치는 전작 성적



방탄소년단이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MAP OF THE SOUL : 7'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와 함께 양대 팝 차트로 평가받는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1위를 예약했다.

오피셜 차트는 같은 날 BTS가 "두 번째 영국 내 1위 앨범을 예약"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BTS가 '맵 오브 더 솔 : 7'로 두 번째 영국 앨범 차트 1위를 향해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 새 앨범은 이번 주 CD와 다운로드에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자, 경쟁 주자 3팀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고 오피셜 차트 측이 덧붙여 압도적인 1위를 예고했다.

방탄소년단은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로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정상에 오른 바 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에서 네 번째, 오피셜 차트에서 두 번째로 정상을 예고하며 세계 음악시장에서 존재감을 거듭 증

명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K팝 역사에 중요한 순간을 기록했다.

'맵 오브 더 솔 : 7' 순위가 포함된 공식 차트는 빌보드의 경우 3월 7일자 차트로, 3월 1일(현지시간)에 상위 10위권이 먼저 발표될 전망이다. 오피셜 차트는 28일 발표된다.

앨범 차트에서 정상을 예고한 방탄소년단이 싱글 차트에서는 어떤 성적을 낼지 주목된다.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 앨범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8위까지 올랐고, 오피셜 차트에서는 13위를 기록한 바 있다.

통상 앨범 차트가 팬덤과 밀접하게 연결됐다면, 싱글 차트 영향력은 대중성이 있는 '히트 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는 미국·영국

앨범 차트 1위로 "글로벌 슈퍼스타" 다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싱글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앨범이 세계 평단으로부터도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는 점도 눈길을 끈다.

미국 음악매체 롤링스톤은 24일 새 앨범 리뷰 기사에서 "방탄소년단이 자신들의 팝음악 숙련도를 아쉽게 과시했다"고 평가하며 별 5개에 4개를 부여했다.

아직 집계 최고 권위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는 지명되지 못한 방탄소년단이 이번 앨범을 디디들로 그래미까지 날개를 펼칠지도 주목된다.

방탄소년단은 한국시간 25일 오후 방영된 미국 NBC '더 투나잇 쇼 스타팅 지미 팰런'을 통해 이번 앨범 타이틀곡 '온'(ON) 무대를 처음 공개한다. 뉴욕 기자역인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대규모 퍼포먼스를 펼친다. /연합뉴스

예쁘지만 심심한 '날씨가 좋으면...' 1.9% 출발 '낭만닥터 김사부2' 23.7% 또 최고 시청률 경신

추운 겨울을 배경으로 그림처럼 예쁜 두 남자가 펼치는 따뜻한 로맨스극은 불만하지만, 어딘가 심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30분 JTBC에서 방송된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첫 회 시청률은 1.925%(유료 가구)로 나타났다.

드라마는 복현리 '굿나잇 책방'에서 재회한 목해원(박민영 분)과 임은섭(서강준)의 감정을 섬세하게 담았다. 서울살이에 지친 해원은 고향으로 돌아오고, 책방을 운영하는 은섭은 그런 해원을 반가워했

지만, 속마음은 꿈꿨는지 오래였다. 해원이 10년 만에 참석한 동창회에서 흐르는 돌사미묘한 기류나 '굿나잇 책방'의 따뜻한 분위기는 잘 살렸지만, 전반적으로 큰 감동이 없어 밋밋하고 지루하게 보인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원작 자체가 크게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몰입도가 낮은 단점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이 드라마 성공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최종회반을 앞둔 SBS TV 월화극 '낭만닥터 김사부2'는 23.7%로 다시 한 번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연합뉴스

김하늘·윤상현·이도현, JTBC '18 어게인' 캐스팅

배우 김하늘과 윤상현, 이도현이 JTBC 드라마 '18 어게인'에 캐스팅됐다.

25일 '18 어게인' 측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이혼 직전에 18년 전 전성기로 돌아간 남편의 이야기로, 할리우드 스타 잭 에프론 주연의 영화 '17 어게인'을 원작으로 한다. KBS 2TV '고백부부' (2017)를 연출한 하병훈 PD의 JTBC 이적 후 첫 연출작이다.

김하늘은 쌍둥이 남편의 엄마이자 프로페셔널한 아내로서 '정다정' 역할을 맡았다.



김하늘·윤상현·이도현

윤상현과 이도현은 '홍대영'이라는 동일한 인물을 연기하는데, 각각 37세 홍대영과 18세 홍대영으로 분한다.

'18 어게인'은 올해 하반기 방송된다. /연합뉴스

개그맨 김경진·모델 전수민 '백년가약'

코미디언 김경진(37·사진)이 모델 전수민(30)과 오는 6월 결혼한다.

김경진 소속사 에스토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5일 "김경진과 전수민이 1년 넘게 만남을 이어오다 백년가약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결혼식 날짜는 6월 27일로 잡았다. 2007년 MBC 16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

뷔한 김경진은 MBC TV '무한도전'의 '코리안 플라이 콘테스트' 편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전수민은 2008년 제인송 컬렉션 모델로 데뷔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특집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플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더 게임:0시를 향하여(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실컷 나는 오늘
[11]	00 KBS 뉴스특보-코로나19	00 포레스트(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헬로카봇 유니버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BBB삼총사의 모험 55 뽀뽀보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고고씹 50 KBS 재난방송센터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2(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특보-코로나19			00 뉴스브리핑
[3]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나쁜사랑(재)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플 샐러드(재)	00 두 번은 없다(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시노스톤 프라임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5 최중우돌 만국 유랑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미니디Q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환상의 타이밍 다시보기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0 살리는 남자들	55 더 게임:0시를 향하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10' 55 더 라이브	00 포레스트	05 실화탐사대	00 이동욱은 토코가 하고 싶어서
[11]	35 UHD 숨터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배틀 트립(재)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특보-코로나19 50 인간극장 스페셜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영상앨범 박(재)	35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0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2:10 극한직업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30 뽀뽀뽀 뽀로로	13:00 EBS 다크프라임	19:00 스파이더맨
07:45 페파 피그	13:55 EBS 초대석	19:30 생방송 판다다
08:00 당동당 유치원	14:45 몰랑	20:00 머털도사
08:30 애코와 친구들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20:30 아웅만명 귀여워2(재)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엄마 까투리	15:25 제로미노 스틸턴의 모험	<남미지질기행-비밀의 대화원, 아마존>
09:30 원더볼츠	15:55 엄마 까투리(재)	21:30 한국기행
09:40 아웅만명 귀여워2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봄, 봄이 오면 3부>
10:00 특집 부모특강-0.1%의 비밀	16:25 페파 피그(재)	봄바람 불어 오면, 청산도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당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1:50 EBS 다크프라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2:45 극한직업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3:35 EBS 초대석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6일(음 2월 3일 己亥)

<p>子</p> <p>36년생 쌍방이 상호적이어야만 오래 지속 될 것이다. 48년생 조금만 더 참고 있으면 모두 해결 될 것이니라. 60년생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별다른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72년생 진중한 태도로써 초지일관 한다면 성사 되리라. 84년생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알게 되는 마당이다. 96년생 긴박한 동세이다.</p> <p>행운의 숫자 : 14, 87</p>	<p>午</p> <p>42년생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고 확실히 대응하라. 54년생 양호한 성과를 거두면서 유리한 위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66년생 생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78년생 시기에 맞춰서 행해야 할 중차대함이 있다. 90년생 여건이 조성 되면서 재물이 생길 수 있나. 02년생 마음을 설레게 하는 길사가 기다리고 있다.</p> <p>행운의 숫자 : 32, 92</p>
<p>丑</p> <p>37년생 결정적인 시기에 합리적으로 처리해야겠다. 49년생 뜻밖의 것이 발생할 수 있으니 두루 살펴보자. 61년생 총체적인 점검과 사후 대처가 절실한 도량이다. 73년생 추구한다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85년생 전방위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97년생 당황하리라.</p> <p>행운의 숫자 : 21, 61</p>	<p>未</p> <p>31년생 현재의 괴로움은 미래의 기쁨이 될 것이니라. 43년생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운들이 보인다. 55년생 기본적인 조건을 안정되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 하리라. 67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79년생 지난 날 쌓아 놓은 실적에 의해서 박수 받을 일이 있다. 91년생 재물이 생기는 기쁨이 있다.</p> <p>행운의 숫자 : 15, 60</p>
<p>寅</p> <p>38년생 회비가 교차하니 방심하면 아니 된다. 50년생 바쁜 기만 하고 실리는 박하겠다. 62년생 판도를 쉽게만 본다면 많은 취약점들을 간과하게 되느니라. 74년생 규칙적이어야만 현상을 감당하게 된다. 86년생 낮게 책정하는 것이 순탄함을 유도하게 되리라. 98년생 뜻밖의 만남이 있으나 짧은 인연일 뿐이다.</p> <p>행운의 숫자 : 84, 57</p>	<p>申</p> <p>32년생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디딤돌이 놓인다. 44년생 초기 상황에서 거의 승부가 나버릴 가능성이 높다. 56년생 기대했던 바에 외의 걸림돌이 보인다. 68년생 적용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80년생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희망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92년생 종합적인 진단이 관건이다.</p> <p>행운의 숫자 : 47, 58</p>
<p>卯</p> <p>39년생 능후가 경작하는 심정으로 처리해나가는 것이 옳다. 51년생 더불어서 행해도 전혀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63년생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만 할 국제시니라. 75년생 밝은 지혜로써 살피고 정확히 개진해야 할 판국이다. 87년생 강구한다면 능히 방책을 찾게 되리라. 99년생 겨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p> <p>행운의 숫자 : 16, 66</p>	<p>酉</p> <p>33년생 개선한다면 분명히 효과를 보게 된다. 45년생 깊은 화려하나 실속은 별로 없을 것이다. 57년생 가시 없는 장미는 없느니라. 69년생 처음에 마음먹었던 바를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판국에 이르러게 될 것이다. 81년생 역량 부족으로 인해 한계에 도달 한다. 93년생 정황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어야만 한다.</p> <p>행운의 숫자 : 33, 69</p>
<p>辰</p> <p>40년생 우산을 준비해 뒤야 우기에 대비할 수 있다. 52년생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64년생 참신한 발상과 의식의 전환이 시급한 때가 되었고다. 76년생 생적 적합하므로 유지해도 된다. 88년생 내일 벌어질 구도까지 감안한 후에 결정을 하라. 00년생 바탕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한계 정황에 봉착한다.</p> <p>행운의 숫자 : 38, 59</p>	<p>戌</p> <p>34년생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미치는 파장은 대단할 것이다. 46년생 머지않아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니라. 58년생 기초가 부실하다면 극한 환경에 이른다. 70년생 대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중하는 것이 옳다. 82년생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생길 것이다. 94년생 면면한 검토 후의 판단이 손실을 줄이게 할 것이다.</p> <p>행운의 숫자 : 08, 53</p>
<p>巳</p> <p>41년생 확립적이라면 곤란하다. 53년생 변화무쌍한 가운데 희망의 조짐이 나타난다. 65년생 지리멸렬 해왔던 일들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다. 77년생 징후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예견할 수 있으리라. 89년생 역할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01년생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p> <p>행운의 숫자 : 13, 96</p>	<p>亥</p> <p>35년생 풍성한 소득을 가져오는 성공의 마당이다. 47년생 변화보다는 안정을 꾀해야 할 세태라 할 만하다. 59년생 갑자기 허망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겠다. 71년생 철저히하게 관리를 해야겠다. 83년생 미봉점은 두 번 일을 하게 한다. 95년생 성숙에 대비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요구된다.</p> <p>행운의 숫자 : 40, 86</p>